

말씀의 샘

예수 안에 한 가족 <에베소서 4장 11~16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도 말입니다.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과 사람이 나눈다는 것을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없고 점점 개인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장한 인터넷 세상은 사람을 더욱 개인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교회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현재, 유럽의 교회는 점차 사라지고 술집으로 치장되거나 오피스나 아파트 상가로 개축되는 형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도 '탈종교' 붐이 일어나 지난해만 750만명이상이 교회와 종교 단체를 이미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앙은 더불어 하나되는 것인데, 이 시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개인의 신앙도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의 공동체가 신뢰에 금이 가고 하나됨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영도, 그들의 신앙도 파헤쳐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 신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그에 따른 달란트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각종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사역자를 능력있게 훈련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복을 받기 바라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길 바라고 직분을 주시면 인정해 주시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몸은 세워지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하고, 직분이 명예가 되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몸을 세우는 목적이 상실되니까 오히려 몸을 찢고 갈라지는 슬픈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며 계급도 더더욱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빛나감으로 말미암아 몸은 세우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만 세우게 되는 잘못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남겨두고, 곧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각각 구하도록 명하십니다. 텐트 생활을 할 나그네 백성들에게 무슨 보석이 필요하니까? 무슨 돈이 필요하니까?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곧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도 직분도 은사도 축복도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끼리 끼리병”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기주의의 내지는 집단 이기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하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엡 4:3**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심혈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나를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목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성장은 하나될 안에 있습니다.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16절에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하나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지체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뼈와 살, 핏줄, 피, 신경과 세포가 아주 세밀하게 다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만큼 한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철저히 붙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고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정교하게 연결된 핏줄과 세포를 통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엡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 복의 근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그 공급이 교회의 공동체로 지체된 우리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붙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인주의가 되어 가다보니 갈수록 떠돌아다니는 철새 성도가 많아집니다. 혼자서 간섭받기 싫고 섬이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적용하고 때론 깎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온전히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함께 믿는 지체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교회지 무슨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이 피가 섞였냐, 성이 같냐,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가 섞였습니다. 우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나는 영원한 지체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피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흐르고 있으면서 한 소망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공유하고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증을 느끼고 중보하고 관심갖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며 몸을 세워가는 존귀한 두란노 교회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 11. 29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12. 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1장 21~23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